



영·농이네기 감사합니다

“행복한사람들이 모여서 눈꽃이 아름다운 이야기”



Contents



03 신규직원 인사말

04 행복한 추석명절

05 마음담기 바다여행

06 문화체험활동

08 충주시장애인건기대회

09 꽃들에게 희망을

10 지역사회활동

11 직원연수

12 성탄절

13 나눔의집 이런일 저런일

15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소중한 분들

19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알림마당

최근 충주 시내에서 나눔의집을 사칭하며 물품(반찬, 껌, 떡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은 지역 업체(식당, 슈퍼 등)에 방문하여 물건을 판매하지 않으며, 위 사진의 나눔의집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을 수령 후 직접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나눔의집으로 연락주세요~

나눔의집 홈페이지

<http://www.cjnanum.or.kr>

발행인 : 나눔이네 사람들
편집인 : 김용철, 이정화, 유혜인
인쇄처: 디자인잠수함 TEL : 043) 855-2231

(우) 27489 충북 충주시 도장관주로 34-19
TEL : 043) 843-9912, 844-8150
FAX : 843-9911

신규직원 인사말



생활재활교사 전 해 슌

8월 1일에 입사하여 어느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 만큼 그동안 많은 경험과 배움을 얻을 수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별호호실뿐만 아니라 여러 복지사 선생님들께서 항상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세심하게 알려주신 덕분에 안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지역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나눔의집 이용인분들을 만난 경험은 있었지만, 시설에 근무하며 직접 케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처음이라 초반에는 다소 낯설고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배려 덕분에 점차 업무에 적응할 수 있었고, 그 과정속에서 4개월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무하며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용인분들의 웃음소리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순간마다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평소 아침에 긍정적인 글귀를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있는데, 작은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이용인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긍정적인 태도로 이용인분들과 소통하며, 맡은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근무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맞이

내담호실 임 주 선

어릴 적 추석이 다가오면 마음은 어느새 들뜬 설렘으로 가득해지곤 했습니다. 세찬 가을바람이 불어와도 새 옷을 입을 생각에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고, 온 집안에 솔잎 향이 은은하게 배어들던 송편 냄새는 며칠 전부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전을 부치는 어머니 곁에 앉아 한 장이라도 먼저 맛보고 싶어 조심스레 기다리던 순간들, 시간이 흘러도 문득 떠오르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소중한 기억들입니다. 올해 우리 내담이네 식구들도 그런 추억을 떠올릴 만큼 따뜻한 추석을 함께 보냈습니다. 복도마다 맛있는 냄새가 가득 퍼지고, '전 부치는 날'에는 서로의 기대와 웃음이 부엌 앞을 채웠습니다. 선생님들은 이날만큼은 모두가 훌륭한 요리사가 되어 정성껏 전을 부치셨고, 이용인분들은 하나씩 맛보며 "이건 무슨 전이냐"며 호기심 어린 질문과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름에 노릇하게 익어가는 전처럼 모두의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호실 대항 윷놀이! 나눔의집 마당은 어느새 축제의 장처럼 활기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윷을 던지는 손끝에는 작은 긴장감과 큰 기대가 함께했고, 뜻밖의 '모'와 '윷'이 나오면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기고 싶은 마음은 잠시뿐, 우리 이용인분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즐겁게 참여하며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결국 승부보다 더 큰 기쁨을 나누며 모두가 우승자가 되어 마당을 떠난 순간, 진짜 명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에 걸쳐 진행된 추석맞이 프로그램들은 비록 가족들과 직접 함께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서로에게 '가족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놀이, 따뜻한 정이 오가는 자리 속에서 우리 내담이네 가족들은 행복과 온기를 마음 깊이 채워 넣었습니다. 이번 추석의 따스함이 우리 식구들의 마음 한편에 오래도록 머물며, 앞으로의 하루하루에도 잔잔한 기쁨과 행복이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올해도 서로의 곁에서 웃을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그런 풍성한 한가위였습니다.





함께여서 가능했던 바다여행

생활재활교사 김 민 영

2025년 11월 5일, 약 1년 전부터 계획해 온 바다여행을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출발을 앞둔 황인구 씨와 김경희 씨의 얼굴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맞이한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구씨에게 바다여행은 단순한 외출이 아닌, 매일의 노력과 훈련이 필요했던 목표였습니다. 장시간 휠체어 착석으로 인한 통증과 신체적 부담을 고려하여,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일 휠체어 착석 지원을 실시하며 착석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도 쉽지 않았지만, 바다를 보고 싶다는 의지로 힘든 과정을 묵묵히 견뎌내며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연습과 꾸준한 지원을 통해 장시간 이동에 대한 신체적 적응이 가능해졌고, 마침내 바다여행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동 중에도 이용인의 컨디션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지원을 이어갔고, 인구 씨는 “기분이 최고다”라는 말로 준비 과정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경희 씨 역시 “바다는 처음”이라는 말로 이번 여행이 지닌 특별한 의미를 표현하였습니다.

삼포교에 도착해 바다를 마주한 두 분의 표정에는 그동안의 힘든 준비 과정이 보상받는 듯한 만족감과 성취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귀가길에 경희 씨가 “내년에도 다시 오고 싶다”고 말한 한마디는, 이번 경험이 단순한 하루의 추억을 넘어 앞으로를 살아갈 새로운 힘이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바다여행은 매일의 훈련과 단계적인 지원, 그리고 이용인의 의지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로, 함께 준비하고 동행하는 과정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햇살 아래 피어난 우리들의 순간



상담평가요원 유 혜 인

나눔의집 학생 이용인들과 함께 ‘햇살아래체험농장’으로 문화체험을 다녀왔습니다. 이름처럼 맑은 햇살이 가득한 날, 이용인들은 늘 보던 일상에서 한 걸음 벗어나 자연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나씩 채워갔습니다.

이번 체험에서는 다육이 만들기, 사과 따기, 동물 먹이주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화분에 자신만의 다육이를 심어보는 시간에는 이용인들의 표정이 유난히도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손끝으로 흙을 만지며 차분히 심어가는 모습은 마치 작은 생명을 돌보는 마음처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빨갛게 익은 사과를 직접 수확하며 새로운 경험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과를 손에 담아 본 후에는 “예쁘다”, “맛있어 보인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주변에 보여주고 공유하는 모습을 통해 각자의 방식으로 기쁨을 표현했고, 이러한 순수한 모습들이 자연을 닮은 따뜻함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동물 먹이주기 체험 시간에는 토끼와, 말, 염소들이 이용인분들에게 다가와 먹이를 받으며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이용인들은 작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먹이를 건네며 동물들의 움직임 및 따뜻한 체온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고, 그 순간 아이들의 눈빛은 더욱 깊고 맑아졌습니다.

이번 문화체험은 단순한 외부 활동을 넘어, 이용인들이 자연의 따뜻함을 느끼고, 누군가에게 주는 경험을 통해 마음을 나누며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햇살 아래에서 이용인분들이 지은 미소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큰 선물이며,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순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주시장애인걷기대회

물리치료사 이 옥

‘빨갛게 노랗게 물들었네 파랗게 파랗게 높은 하늘’ 노래 가사처럼 고운 비단길로 변해가는 10월 가을에 충주에서는 충주시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충주시장애인걷기대회가 있었고 이번 걷기대회에 우리 나눔의집에서도 5명이 참가 하였습니다. 나눔의집에서는 매일 오전에 이용인 직원이 모여 함께 운동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걷기대회에 참가 하게 된 5명도 매일 오전에 모여 걷기 운동을 하였고 그 동안의 운동이 체력으로 단련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번 걷기대회에 도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2명은 올해로 3번째 참가였지만 3명은 올해 처음 참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반 걱정 반인 마음으로 걷기대회 참가 신청서를 제출 하였고 10월 28일 오전 9시 10분 10명(이용인 5명, 인솔자 5명)은 걷기대회가 열리는 탄금공원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당일 날씨가 갑자기 많이 쌀쌀해져서 개회식은 실내(국제무예센터)에서 열렸고 개회식이 마친 후 준비운동을 하고 4km 걷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코스는 탄금공원에서 목행동 구간 강변도로(자전거도로)를 따라 왕복 4km 였습니다. 우리는 단단한 마음으로 국제무예센터에서 나와 반환점을 향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음이 앞서 빠르게 걷기 시작 하였고 500m가 지나고 1km가 지나자 보행 속도는 점점 줄어들면서 앓을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1Km가 좀 지나자 쉴 수 있는 벤치가 보였고 벤치를 향해 한명 한명씩 다가가 앉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난 뒤 앞으로 더 나아 가고자 하였지만 우리 몸이 허락하지 않아 다시 출발점(도착점)으로 되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반환점까지 가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다음에 있을 기회를 생각하며 오늘은 여기서 만족하기로 하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예쁘게 활짝 피어있는 코스모스가 있어 한껏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고 또 아름다운 주위 풍경을 보며 다음에는 더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는 다짐을 하고 걷기대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즐겁게 참여해 주신 이용인분들과 옆에서 안전하게 인솔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걷기대회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모두가 건강하고 좋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선임생활재활교사 김 윤 이

희망을 담은 꽃들의 하루*^^*

(꽃들에게 희망을~ 매주 목요일을 기다려요.)

나눔의집에서는 이용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돌보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꽃들에게 희망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용인들은 매주 목요일 오후에 진행된 프로그램을 통해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부에서 전문 강사님이 방문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주었으며, 이용인들은 매 회기마다 새로운 재료를 준비해 오시는 강사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곤 했습니다. 강사님이 도착하시면 환한 미소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식물을 만지고 향을 느끼며 나만의 작품을 가꾸는 과정속에서 이용인들의 표정에 여유와 미소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특히 자신이 직접 심은 작은 화분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과 성취감을 표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완성된 작품을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거나 호실로 가져가 담당교사와 다른 이용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공간에 놓아두고 작품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모습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 담당 교사들에게도 큰 보람과 따뜻함을 전해주었습니다. 11월을 마지막으로 올해의 “꽃들에게 희망을” 프로그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새롭고 의미 있는 활동으로 강사님과 다시 만나 즐거운 시간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역사회 속으로 한 걸음 더



선임생활재활교사 임영훈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 어느덧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나눔의 집에서는 이용인들과 함께 지역사회참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외부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직원들과 함께 지역 내 마트를 방문하여 일상생활 경험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행이 가능한 일부 이용인들은 직접 카트를 밀며 매장을 둘러보고, 평소 선호하는 간식을 스스로 선택하여 구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인들이 일상적인 소비 활동에 참여하고, 선택의 경험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권오국 씨, 강미숙 씨 등 개인의 의사표현이 가능한 이용인을 대상으로 외부 미용실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용인들은 미용사에게 본인이 원하는 염색 색상이나 헤어스타일을 직접 표현하고 시술을 받았으며, 완성된 모습에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 긍정적인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용인들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활동은 외식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역 내 식당을 방문하여 평소 선호하는 음식을 직접 주문하거나, 동행한 직원의 지원을 받아 키오스크 사용을 연습하며 식사 선택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이용인들의 밝은 표정은 활동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해주었습니다. '행복한 동행'이라는 사업명에 걸맞게, 마트에서의 물품 구매, 식당에서의 외식 경험, 미용실에서의 스타일 변화, 영화관 관람 등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이용인과 직원 모두가 함께 어울리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용인들의 일상생활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통의 하루가 우리 모두의 행복』 속으로

거주지원팀장 이 현 숙

나뭇잎이 물들기 시작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을 감상하기에 딱 좋은 10월의 어느 날 직원 연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나눔의집에서의 경력인데도 이번 연수는 조금은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송덕원 법인 내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시다 순환보직으로 올 1월에 나눔의집으로 온 선생님, 4년 전 순환보직을 왔지만 임신, 출산으로 마치 신규직원 같은 느낌의 선생님 등등...

8명이 함께한 이번 연수는 나눔의집에서 함께 근무한다는 공통점 외에는 낯선 조합에 개인적으로 조금 의기소침해지는 연수였습니다.^{^^} 연수를 가기 전 방문할 장소를 검색하고, 식사할 장소 등을 상의하며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뮤지엄산'으로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박물관을 돌아보며 이해(?)할 수 없는 작품들을 감상하였지만 주변 경관과 딱 맞는 좋은 날씨덕에 일상에서 벗어난 오랜만의 외출이 마냥 즐거운 하루입니다. 은행나무 나이가 800년~1,000년 정도로 추정된다는 천연기념물인 반계리 은행나무 서식지에도 방문하였습니다. 아직 노랗게 물든 완연한 가을 은행나무의 모습을 볼 수 없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은행나무 주변을 한바퀴 돌며 소원도 빌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간담회의 최종 목적을 위해 카페에 방문하여 26년도 나눔의집 슬로건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어떤 문구가 좋을지도 생각하며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25년 나눔의집 슬로건인 『맑고 작은 행복들 담은 시간』을 생각하며 소소한 일상을 위해서는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이건 아니던, 나이가 많던 적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소소한 행복을 위해 또, 별 탈 없이 지나가는 평범한 하루 하루를 보내며,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참 자-알 보냈다 생각할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보통의 사람들처럼 나눔의집 이용인들도 보통의 하루처럼 보통의 일상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용인이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보통의 하루가 우리 모두의 행복』이라는 문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정신없고 바쁜 일상의 반복이었던 다사다난했던 25년을 뒤돌아보며 또, 감담회의 자리를 빌어 지난 일들을 생각해보입니다. 이용인들이 손짓, 몸짓으로 의사 표현할 때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흘려 듣지는 않았는지 때문 그들 때문에 힘들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눔의집의 이용인들이 있어 즐거웠고 웃을 수 있었음을 생각하며 26년에는 모두가 보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日日是好日(일일시호일) 날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함께여서 더 따뜻한 성탄

심리상담평가요원 유혜인

12월 24일, 성탄절을 맞아 원에서는 이용인분들과 함께 특별한 크리스마스 하루를 보냈습니다. 연말의 설렘과 따뜻함을 고스란히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작은 준비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 성탄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용인분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며 산타 복장을 준비하고, 직접 고른 선물을 정성스럽게 포장하였습니다. 신나는 캐럴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산타가 각 호실을 방문하자, 이용인분들은 익숙한 공간에서 갑작스러운 기쁨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말 대신 미소로, 손짓과 눈빛으로 전해지는 반가움은 그 어떤 말보다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1층과 2층에는 크리스마스 포토존을 마련하여, 이용인분들이 산타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소중한 순간을 남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웃고, 주변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모습 속에서 크리스마스의 따뜻한 온기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성탄행사는 단순한 하루의 이벤트가 아니라, 이용인분들께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는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용인분들 모두 안정된 모습으로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순간은 함께 나누는 온기로 오래도록 기억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용인분들의 하루하루가 더 환하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담은 동행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런일 저런일



- 일시 : 2025년 10월 13일, 17일
- 장소 : 나눔의집
- 내용 : 이용인 및 직원 인권교육



- 일시 : 2025년 10월 14일
- 장소 : 나눔의집
- 내용 : 이용인 성교육



- 일시 : 2025년 10월 16일
- 장소 : 나눔의집
- 내용 : 접시만들기 체험

- 일시 : 2025년 10월 31일
- 장소 : 나눔의집
- 내용 : 일본삼나무아이회방문

이런일 저런일



- 일시 : 2025년 11월 27일
- 장소 : 서울 국회
- 내용 : 탈시설지원법안 반대집회



- 일시 : 2025년 11월 29일
- 장소 : 나눔의집
- 내용 : 부모회의



- 일시 : 2025년 12월 19일
- 장소 : 나눔의집
- 내용 : 감사의날



- 일시 : 2025년 12월 31일
- 장소 : 나눔의집
- 내용 : 종무식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소중한 분들

25. 10. 1~
25. 12. 31

매월 후원해주신 후원금은 나눔의집 입주민과 시설운영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강○진	김○순	김○정	김○영	김○민	박○우	백○록	안○기	유○종	이○한	이○선	정○근	최○기	허○우
강○기	김○석	김○현	김○화	김○주	박○희	서○구	안○준	윤○한	이○예	이○진	정○용	최○철	현○호
강○영	김○성	김○수	김○국	김○지	박○근	서○석	양○국	윤○영	이○수	임○산	정○원	최○범	홍○기
강○원	김○홍	김○준	김○수	남○은	박○순	서○희	어○림	윤○원	이○영	임○희	정○일	최○수	황○남
고○희	김○수	김○곤	김○옥	남○진	박○미	서○호	엄○철	윤○준	이○옥	임○균	정○오	최○례	황○범
곽○정	김○운	김○희	김○용	남○옥	박○경	손○숙	연○섭	이○훈	이○민	임○호	조○란	최○주	황○숙
곽○익	김○표	김○경	김○은	노○태	박○철	송○근	염○선	이○하	이○환	임○주	조○희	최○현	황○오
구○선	김○배	김○미	김○희	노○심	박○숙	송○성	오○숙	이○규	이○숙	임○웅	조○희	최○우	황○필
구○경	김○구	김○복	김○덕	류○기	박○완	송○호	오○민	이○익	이○원	장○태	조○재	최○애	황○영
구○연	김○애	김○원	김○일	문○화	박○현	송○석	오○중	이○정	이○형	장○오	조○순	최○욱	황○현
구○영	김○영	김○기	김○희	문○석	박○수	신○순	우○현	이○진	이○일	장○자	조○연	최○숙	최○열
권○주	김○경	김○환	김○영	문○송	박○숙	신○수	위○희	이○호	이○희	장○경	주○은	최○은	최○열
권○일	김○식	김○식	김○구	문○원	박○정	신○호	원○희	이○미	이○화	장○미	지○만	하○길	최○열
권○원	김○일	김○행	김○성	민○숙	박○옥	신○순	원○식	이○화	이○혜	장○완	지○순	한○식	최○열
권○연	김○규	김○영	김○원	민○식	반○남	신○곤	유○철	이○경	이○세	장○원	차○유	한○미	최○열
권○석	김○교	김○곤	김○현	민○기	배○선	신○기	유○경	이○훈	이○순	장○주	채○선	한○주	최○열
권○중	김○남	김○아	김○희	박○순	배○순	신○산	유○정	이○준	이○연	전○수	채○석	한○성	최○열
권○희	김○곤	김○아	김○분	박○경	백○문	심○권	유○진	이○현	이○나	전○정	최○수	허○영	최○열
김○수	김○섭	김○휘	김○수	박○양	백○진	심○보	유○순	이○빈	이○숙	정○준	최○주	허○연	최○열
김○수	김○민	김○희	김○준	박○영	백○옥	심○현	유○현	이○진	이○영	정○진	최○욱	허○수	최○열

2025년 10월~2025년 12월 신규후원자님



제○앤씨 산업, 디○일 타일, 남○민, 임○성, 홍○성, 에○피엔씨, 박○원

단체 및 특별후원



(주)거성에너지 한국도로공사
 (주)농업회사법인 자연알로 한마음약국
 교현충일약국 김재권내과
 (주)슈플(아이디) 이차과
 (주)신한은행 총주아현신용협동조합
 (주)충주사과학과 고려왕족발
 (주)케이피에프 디케이타일
 남양유업충주담금가정대리점 롯데칠성음료충주대리점
 대분통상 대경리데일
 더블어민주당 충북도당 대한산업안전협회
 MG새마을금고(남충주점) 노남마트
 고향떡집 우림산업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현대사무용기구
 제지등교회 박동상회
 나눔사랑회 방주지원
 나눔의집 경영자문위원회 샘물중앙교회
 나눔의집 부모회 성심맹인원
 나눔의집 전직원 성충문구도매
 남법우평안정신건강의학과의원 성호종합주방
 네이버 해피빈 송덕교회
 한국메디칼푸드 송덕골터
 하나라마트 기업도시점 송덕재활원

양문교회 호암일미눔
 스타상사 양문간재
 경신상회 중앙치과
 충주건국대학교병원
 충주풍물시장상우회
 크기말영농조합법인
 에스피엔씨
 은성미가(정미희 사과계장)
 봉방동성당
 이형선복지재단
 참수함
 서충주로타리클럽
 주백성교회
 모꼬지 미용봉사팀
 충북도청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주시사회
 충주세무서
 충주시장애인다사랑센터

충주시청 충주의료원
 충주다이아몬드
 충주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카카오 같이가치
 국원전기
 카카오같이가치
 119안전센터
 대장군식당
 충주남부소방서 남부19센터
 케어메디컬
 미르의원
 충주시새마을회
 홈플러스
 무학시장장인회
 햇살집자
 현대오일뱅크
 호성종합설비
 흥이스아과
 충주사랑회
 충주세무서
 현대의료기
 노무법인 화원

대광식당 대한고등학교
 대한적십자사 충주지부협의회
 엘림영농조합법인 연민복지재단
 오미치과과
 오성가메트
 태성수산
 푸드뱅크
 대한적십자사 충주지부협의회
 성모요양병원
 세명대한반병원
 세운의료기
 충주시노인전문병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북음악지사
 제이앤씨산업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소중한 분들



25. 10. 1~
25. 12. 31

방/문/후/원



- | | | | |
|-----------------------|---|------------------|-------------------------------------|
| (취) 자○일로 | 유정란(30개입) 120판 | 문○향 | 사각쿠션4개, 곰돌이인형2개 |
| 대○적십자사
충주지부협의회 | 단팥빵 180개, 카스테라 180개, 락스 60통 | 푸○뱅크 | 초고추장 24kg |
| 송○교회 | 그레이크 8각, 오예스미니 8각, 사브레 8각,
초코칩쿠키 8각, 에이스16각, 마카렛트 8각,
백설기1말, 롱스 8각 | 이○화
개 | 디저트컵뚜껑세트 30개, 마스크테이프 4 |
| 고○왕족발 | 냉장족발 4팩 | 김○주 | 비타천플러스 1상자 |
| 박○원 | 햇돌호박 32개, 늪은호박 27개, 대파2판, 배추 10
포기, 무 27개 | 최○례 | 사프란 10개, 퍼펙트 액체세제 6개 |
| 조○주 | 바나나 1박스 | 청○위장회 | 화장지180롤 |
| 나○의집 부모회 | 바나나1박스, 사과 1박스, 꽃상추 1박스 | 위○희 | 감귤 10kg, 초코파이 6팩 |
| 나○사랑회 | 깨송편 2박스 | 충○시 새마을회 | 김치 50kg |
| 남○유업 총주 | 떠먹는 볼가리스 4팩, 맛있는 우유GT 40개 | 햇○ 봉사회 | 김치 25kg |
| 조○희 | 칙촉오리지날 2팩, 쿠쉬쿠쉬 1팩, 크라운산도 4팩,
청우팬케이크 1팩모, 종합강정 1팩, 요구르트 20개,
대추 1kg, 빼빼로 3팩 | 송○재활원 | 배추 30포기 |
| 김○영 | 초코파이 8팩 | 충○시노인
전문병원 | 하모닐라액(경장영양제) 150개,
하모닐라투여세트 202개 |
| 윤○순 | 검은콩후두와아몬드 듀유 1박스, 사인머스켓 2송이 | 충○어울림센터 | 단프라박스(이사박스) 31개 |
| 평○학습관 | 오코노미야끼 10팩, 오리고기샐러드 8팩, 감자채전
8팩, 샌드위치 9팩 | 서○희 | 박카스D 20병 |
| 충○시 여성농업인
한마음축제위원회 | 고추장 30kg | 문○향 | 상추장아찌 1.5kg, 고추장아찌 1.5kg |
| 김○주 | 구충제 100정 | 충○북도장애인
종합복지관 | 이찬원 2집 앨범 10장 |
| 오○정 | 카스타드 1팩, 초코파이 1팩, 미분순살과자 2팩 | 조○일 | 사과 20kg |
| 한○미용상사 | 대용량 샴푸 8개 | 권○연 | 초코파이 1팩, 도라지생강차 2,
커피믹스 1박스 |
| | | 김○영 | 초코파이 8팩 |



2025. 10. 01
한국도로공사 후원금 전달



2025. 10. 02
나눔사랑회 후원물품 전달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소중한 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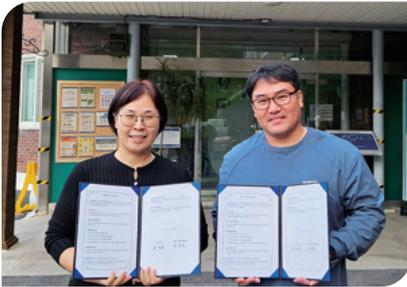
25. 10. 1~
25. 12. 31



2025. 10. 02.
나눔의집 부모회 후원물품 전달



2025. 10. 24
몸마음한의원 업무협약



2025. 10. 31
충주거북이방과후활동센터 업무협약



2025. 11. 11
한국전기안전공사 충주여성지사 후원금 전달



2025.12.17
모꼬지미용봉사단 후원금 전달



2025.12.30
충주양문교회 나오미 여전도회 후원금 전달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소중한 분들



25. 10. 1 ~
25. 12. 31



해피빈 베틀라 구매 모금액 3,818,600원, 해피빈 정기 후원금 918,580원,
김재권내과 지정 후원금 222,820원을 합산한 총 4,960,000원으로
베틀라 기기 1대 구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눔의집을 응원해 주시는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25. 10. 1 ~
25. 12. 31

2025년 04분기 후원금 수입 및 지출 내역



수 입		지 출	
03분기 이월금-지정후원금 이월	9,917,480	인건비(재수당)	4,920,790
03분기 이월금-비지정후원금 이월	42,512,774	인건비(일용직급)	960,000
04분기 수입금-지정후원금 수입	13,796,700	인건비(기타후생경비)	441,620
04분기 수입금-비지정후원금 수입	22,264,877	운영비(여비)	311,300
		운영비(수용비및수수료)	10,161,770
		운영비(공공요금)	11,683,860
		운영비(제세공과금)	993,230
		운영비(차량비)	1,800,405
		운영비(기타운영비)	4,591,340
		시설비(자산취득비)	5,747,060
		시설비(시설장비유지비)	176,000
		운영비(생계비)	1,000,000
		운영비(수용기관경비)	306,950
		운영비(의료비)	569,500
		운영비(연료비)	322,000
		교육비(수학여행비)	147,260
		사업비(사회심리재활사업비)	6,675,560
		사업비(교육재활사업비)	640,000
04분기 수입	88,491,831	04분기 지출금	51,448,625
2025년 12월말 기준 이월금		37,043,206	

2025년 04분기 후원품 수입 및 지출 내역



수 입		지 출	
03분기 이월품-지정후원물품 이월	2,053,910	25년 후원물품(부식)	3,538,050
04분기 수입금-지정후원물품 수입	4,057,860	25년 후원물품(생필품)	882,320
04분기 수입	6,111,770	04분기 지출금	4,420,370
2025년 12월말 기준 이월금		1,691,400	

모금함 설치장소



GS편의점(금릉초교점)	대박나라 로또판매점(용산동)	시티하이퍼 마켓(영진아파트 정문)	식자재왕도매마트(호암동)
GS편의점(충주늘푸른점)	북호두(충주점)	아리산	충주우체국(금능동)
NH농협은행 충주시지부	북적북적 서점	오픈박스(칠금동)	호수갈비(호암동)
공화춘(호암동)	새마을금고(성서점)	이삭스트(호암점)	
강동부속구이(칠금동)	성수이용원(지현동)	중원마트(목행동)	
농협하나로마트(kbs방송국옆)	세종정형외과(연수동)	충주시 용산동 주민센터	

2025년 후원금 수입 및 지출 내역



수 입		지 출	
전년도 비지정후원금 이월금	32,826,605	인건비(재수당)	12,227,870
전년도 지정후원금 이월금	20,661,380	인건비(일용직급)	1,560,000
25년 비지정후원금	85,594,189	인건비(기타후생경비)	2,456,650
24년 지정후원금	25,452,300	운영비(여비)	1,464,300
		운영비(수용비및수수료)	21,376,190
		운영비(공공요금)	13,261,960
		운영비(제세공과금)	4,184,840
		운영비(차량비)	3,152,878
		운영비(기타운영비)	12,238,030
		시설비(자산취득비)	19,302,780
		시설비(시설장비유지비)	7,795,500
		운영비(생계비)	1,068,000
		운영비(수용기관경비)	872,950
		운영비(의료비)	913,500
		운영비(연료비)	322,000
		교육비(수학여행비)	147,260
		사업비(의료재활사업비)	349,000
		사업비(사회심리재활사업비)	24,147,560
		사업비(교육재활사업비)	640,000
25년 수입	164,524,474	25년 지출금	127,481,268
2025년 12월말 기준 이월금		37,043,206	

2025년 후원품 수입 및 지출 내역



수 입		지 출	
전년도 이월품	16,073,130	25년 후원물품(자산)	4,345,000
25년 후원물품 수입	27,516,323	25년 후원물품(부식)	21,676,233
		25년 후원물품(생필품)	15,876,820
01분기 수입	43,589,453	01분기 지출금	41,898,063
2025년 12월말 기준 이월금		1,691,400	



안녕하세요? 나눔의집입니다.



최근 충주 시내에서 나눔의집을 사칭하며 **물품(빵, 떡, 반찬, 김)**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을 요구**하며 후원금을 지원해달라고 합니다.

본 기관은 절대 지역업체(식당, 슈퍼 등)에 물건을 판매하지 않으며

나눔의집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물품이나 현금을 사거나 주지 말아주세요.



사회복지법인 송덕원
충주중앙의
거주시설 **나눔의집**



충주문화시니어클럽 공동체사업단

카페이음

충주문화시니어클럽
공동체사업단 '카페이음'은
'성공문구'의 뜻깊은 나눔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커피 등 다양한 간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043)724-2131

충주시 금봉대로 429
/ 성공문구 앞 대표점

사회복지법인 송덕원
충주문화시니어클럽

충주문화시니어클럽 공동체사업단

충주할매약과



할매약과 인본 뉴-디자인을 소개합니다.

"재미있는 맛"을 소중한 사랑이 가득 선물하세요

충주할매약과의 제품들은 모두 아보스텔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충주할매약과 사업단 및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메뉴	
할매약과	감태약과
모약과세트	동지까불이
흑임자까불이	코코넛까불이
한입강경	한입존득쿠키
한입강경	선물세트

주문 043.724.2121.
충주시(남성로 203번동)

사회복지법인 송덕원
충주문화시니어클럽



사회복지법인 송덕원
충주중앙의
거주시설 **나눔의집**